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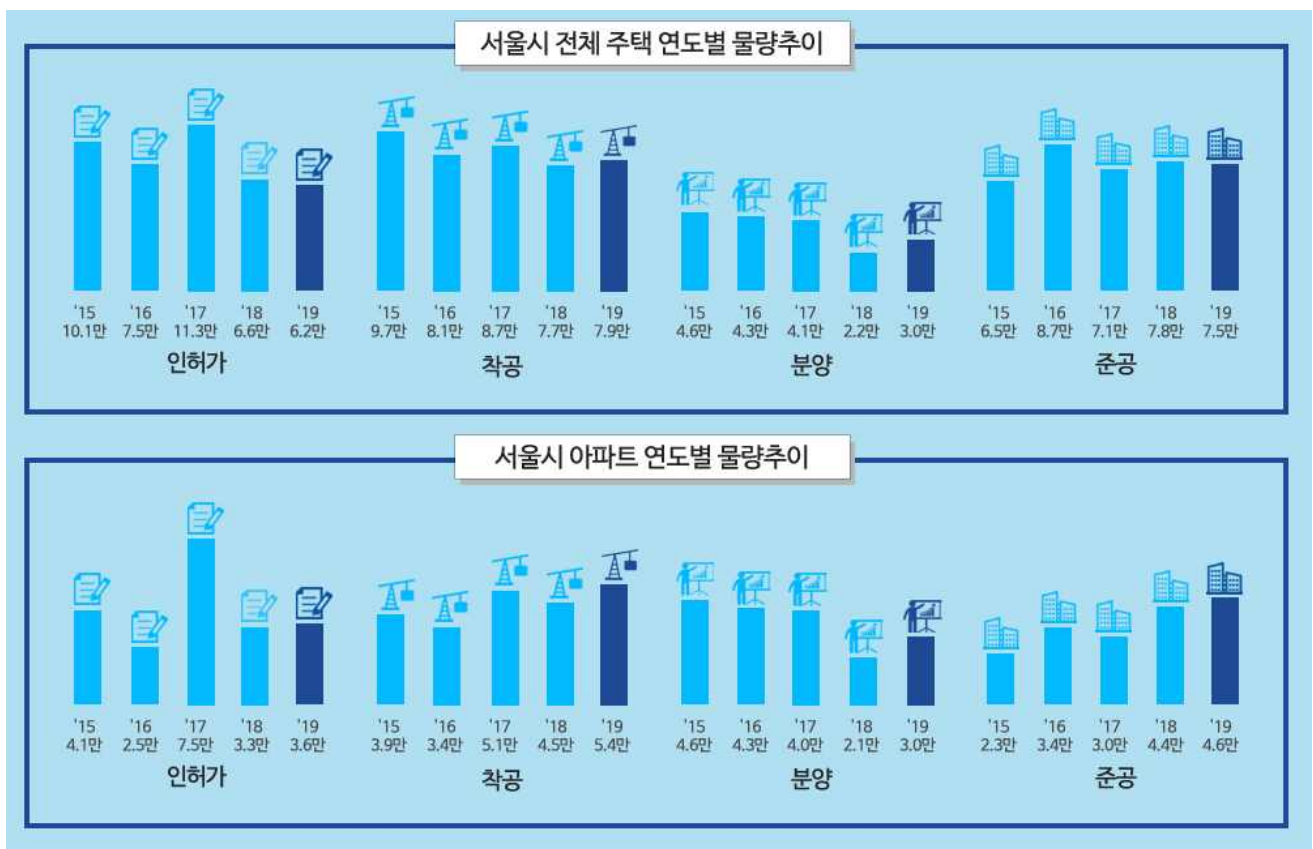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. 31.(금) / 총 3매(본문3)
담당 부서	주택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명섭, 사무관 홍승희 • ☎ (044) 201-4129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서울의 주택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【 관련 보도내용 (1.30. 매일경제) 】

- 작년 주택공급 4대지표 모두 감소
 - 전국 주택 인허가·착공·분양·준공 등 공급 관련 4대 지표가 모두 5년 평균을 하회
 - 서울도 준공실적만 5년 평균을 상회하고, 기타 지표는 감소하여 주택공급 부족 우려

< 서울 주택·아파트 공급추이 >



- 전국 주택공급 지표의 감소는 미분양 물량이 많았던 지방에서의 주택공급량 조절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,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- 서울의 인허가 실적이 5년 평균 대비 감소한 것은 인허가 물량이 예년에 비해 35% 가량 많았던 '17년(11.3만호, 5년평균 8.4만호)으로 인한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습니다.
 - '19.4월 주차장법 강화에 따라 비아파트의 인허가 실적은 감소하였으나, 아파트는 '18년 대비 10.3% 증가하는 등 회복세에 있습니다.
 - 또한, 가로주택정비 사업지의 빠른 증가세('19년 전년대비 109% 증가)와 수도권 30만호 계획 내 포함된 서울 도심 내 4만호 공급계획의 사업승인 본격화* 등을 감안할 때 '22~23년 이후에는 주택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* ~'19년 4개소 1,437호 승인, '20년 29개소 1.5만호 승인 전망

- 서울의 착공 실적은 전체 주택이 7.9만호, 아파트가 5.4만호로 전체 주택은 예년(8.0만호)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아파트는 5년 평균(3.9만호) 대비 39.7%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.
- 서울 분양 실적도 전년 대비 36.4%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 - 특히, 금년에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예년 실적(5년 평균 3.7만호)을 크게 웃도는 5만호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이 예상되어 '18년 다소 저조했던 분양실적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* 둔촌주공 재건축(1.2만호), 신반포3차·경남아파트 재건축(0.3만호) 등

- 서울의 입주 실적은 '19년 전체주택 7.5만호, 아파트 4.6만호로 아파트는 '08년 이후 역대 최대 물량이 공급되었습니다.

- 금년에도 민간 아파트 4.1만호, 공공분양·임대아파트 1만호 이상이 공급되면서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 평균(3.4만호)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정부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‘정비사업 지원 T/F’를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, 가로주택 정비사업 및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 정비 등을 활성화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홍승희 사무관(☎ 044-201-412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